

2024년 6월호(제 234호)

소중한사람들

수국

대생에 한번 뿐이듯
대사랑도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된 우리가
헤어져 사는 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리움
쏟아 놓지 못했던 이야기

목마름에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물
서로 가까이
손내밀어 원을 이룹니다.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처럼
간절한 빔갈로 피었습니다.

푸르디 푸른
한 다발의 회환
꽃무리 되어 쏟아집니다.

시/ 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울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healing.com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소원

목요일마다 어머니께서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청평 센터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실 즈음에는 이미 하루의 많은 일과를 마친 상태라 약간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오시더니 저에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무개 원장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컴퓨터 앞으로 몸을 돌려 앉았습니다.

“송선교사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오세요. 저는 많이 피곤하네요.”

어머니는 별다른 대꾸 없이 나가셨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이 되어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도 아무개 원장님 만나고 왔어.”

살짝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뭐래요?”

“본인이 접수했다고 하니 이제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다음 주 월요일, 서울역에 갈 일이 있어 어머니를 잠시 서울역 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 오늘 ** 기도원 가보자.”

“어머니, 오늘 월요일이에요. 오늘은 쉬세요. 그분들도 월요일은 쉬겠지요.”

“아니야. 가봐야 하는데...”

목요일에 오신 어머니는 벌써 기도원에 다녀오셨나 봅니다.

“오늘은 야외 집회가 있었나 봐. 기다리다가 집회가 계속 되어서 내려왔어.”

금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 오늘 기도원에서 집회 하던가요?”

“... 아니요. 소리 없던데요.”

“아니야. 내가 인터넷으로 보니 내일까지 집회가 있더라고. 한번 올라갔다가 와요.”

어머니의 통화가 끝나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 안에 어머니처럼 소중한 사람들을 확장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당신의 종에게 두시고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안에는 이런 소원이 강하지 않을까?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로 회개가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집중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 주세요.”

“오랜 시간 당신이 원하셨던 이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한 주가 지나 화요일이 되었는데, 오늘도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6월 한 달간 ** 기도원에 집회가 없다고 하네.”

어머니는 또 기도원에 다녀오셨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몹시 힘든 가운데 *** 원장님의 설교 말씀을 다 들으시고 원장님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원장님은 어머니를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제가 접수했다고 했지요.”하면서 막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기도원에 있는 집까지 따라가서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힐링센터로 가는 길에 문이 잠겨 있는 기도원 선교관!

기도원에서는 아무도 없는 그 곳에 빨간 네온사인인 이상한 음식점처럼 아침, 저녁 언제나 켜져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언제나 기도하는 곳

그 자물쇠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암 환우들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소중한사람들에게 주세요. 이렇게 문을 잠궈 놓고 쓰지 않는 이곳을 주시면 암 환우들이 주님을 즐겁게 찬송할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그 일을 위해 주야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니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어머니는 내일도 저에게 전화하실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소원이 마음에 가득하시니까요.

글 / 이성일 목사

Retreat Center (피정) 오픈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가 제 2 Phase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를 열었습니다.

말씀과 자연, 침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로렘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침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침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1. 고*배(5일간)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다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본 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늘 외롭고 혼자인 것 같습니다. 저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곧 죽을 것만 같은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와 같은 상황속에 있는 소사힐에서의 환우들과의 만남과 교제, 은혜 가득한 예배,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라는 힘, 소사힐에서 느꼈던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주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 최*랑(3일간)

소사힐에서의 3박4일의 시간은 영육간의 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지내던 환우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유정옥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상상도 못한 주님의 일하심에 놀랐습니다. 소사힐에 계시는 스텝들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소사힐을 통해서 많은 환우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이*형(6일간)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곳이라서 그런지 소사힐에 와서 보니 이곳에 있는 환우들의 표정이 밝고 평안해 보여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식사 메뉴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맛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정성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옷 매무새와 열정, 그리고 환우들의 적극적인 예배와 스텝들의 수고가 어느 교회 못지않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침 성경읽기, 중보기도시간, 두 번의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매순간 감동이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비로써 깨닫게 되었습니다.

4. 이*희(6일간)

다니엘 기도회에서 유정옥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약속의 물맛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지만 저는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선뜻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생활을 했지만 공동체를 갈망하면서도 계속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고 5년 전 안이 걸렸을 때에도 교회에서 예배만 출석했기 때문에 기도 부탁할 곳도 없었습니다. 22년 12월 페로 암이 전이되면서 리트릿 센터를 권유받았고 이번에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단하고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제 왔구나' 하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사힐에서 여러 가지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 신*숙(6일간)

소중한사람들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도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중보기도 시간에 다 나갔고 고침받았다는 선포를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 고*미(6일간)

소사힐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리트릿센터를 체험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방을 안내해 주셔서 온 곳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비치되어 있는 물품들을 사용하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매번 제공되는 웰빙자연 식단은 영양과 맛에서도 손색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예배시간이 매번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었는데, 그것은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환우들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시간에 찬양과 기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트릿센터에 와서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7. 김*소(5일간)

적절한 때에 리트릿센터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사힐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주님이 채워주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속에 있는 환우들을 만나게 하셔서 다들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중보하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거룩한 성전인 육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소사힐에서 함께 찬양하고 즐겁게 교제함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8. 임*은(5일간)

갑작스런 암 소식과 함께 수술과 항암, 방사선으로 정신없이 지내느라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를 잊은 채로 세 아이와 올라가지 않는 팔을 가지고 살림까지 하느라 많이 지쳐있을 즈음, 지인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사힐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소사힐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과 예배가 저에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느라 내 몸을 챙기지 못했던 제게 끼니마다 맛난 음식과 웃음이 없었던 제 얼굴에 인사와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몸이 날아갈 듯한 체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9. 정*윤(5일간)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환우들이 서로 웃으며 소통하는 모습에서 참 편안한 곳이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직 초신자라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이곳에서 매일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서 귀신들린 이가 찬송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와 닿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변화는 맛있는 식사와 맑은 물 덕분에 소화기능이 좋아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맘 사역도 소중한사람들 사역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까지도요?”

초등 1학년 입학 후 종종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가겠다는 둘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병원도 가보았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놓치고 있는 아이의 심리가 있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되어 결국 심리상담센터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형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요. 가족그림에서도 엄마 옆에 아빠, 아빠 옆에 형을 그렸고 자신은 끝에 있어요”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엄마 옆에 자신을 그려 넣거나 자신을 중심에 두지요”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큰아이를 데리고 여러 치료를 다닌 지 8년째입니다. 큰아이 치료에 따라 일정은 돌아갔고 제가 첫째를 데리고 다니는 동안 둘째는 아빠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렇지만 둘째가 혹여라도 결핍을 느낄까 함께하는 시간동안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마음을 알아주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마음에 짐이나 상처가 될까봐 형에 대한 이해와 양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렸다고 생각했을 아이, 그래서 요구가 많았고 불만사항이 많았구나 하고 생각하니 아이의 마음이 정말 그랬을 만 했구나 하고 더 헤아려졌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추슬러야 했는데 제 마음을 산산조각 나게 하는 단어가 혹 들어왔습니다. “패배자”

큰아이 황희는 어릴 적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아이라 둘째만큼은 잘 키워보고 싶었고 또 제 기대처럼 잘 자라주는 아이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림검사에서도 당연히 엄마 옆에 자신을 그렸을 것으로 확신했는데 그 그림이 “너는 패배자야!” 로 확증시켜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아이마저 그러실건가요? 엄마로서 성공하고 싶었고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못인가요? 그것마저 무너뜨리시는 건가요?” 엉엉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어둠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저를 어둠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아, 첫째처럼 둘째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죠?”
 “네! 좋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권을 옮겨드렸습니다. 자칫 자녀를 우상 삼을 뻔한 저를 건져내야만 했기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깨닫습니다. 2학년인 지금도 종종 배가 아파 학교를 못가겠다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네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보구나’
 ‘학교를 못갈 만큼 마음의 긴장이 큰가 보구나’
 하고 아이를 편안하게 안아주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함께 있어주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잘 인도해 주실런지요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 하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는 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글 / 박선인

그는 나보다 모든 것이 훌륭했다. 무용, 주산, 공부, 그림...거기다가 얼굴도 예뻐다. 그의 언니들은 우리 학교의 수재였다. 또한 그의 오빠는 인천중학교에 들어 갈 만큼 공부도 잘했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전쟁 후 우리들에게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그를 우리는 참으로 부러워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친구가 되었다. 나는 그의 집에 친구 둘, 셋과 함께 놀러갔다. 고무줄을 하러간 것이다. 한창 고무줄을 하는데 누군가 방문을 열어달라고 우는 것이다. 그는 못들은 척 하고 열심히 우리들과 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지 문을 열고는 “너 가만히 있어.” 으름장을 놓고는 문을 꽂았다. 그 방안에는 그의 동생이 있었다. 침을 흘리고 말을 못하고 마음대로 문을 여닫지 못하는 뇌성마비의 동생이 있었다. 그는 그런 아이가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창피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언니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싶은 모양이야. 문을 열어주자.”라고 했더니 끝내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고무줄 하는 것이 싫어졌다. 그래서 멈추어 섰다. “그럼 내가 쓴 동시를 나에게 하나 주렴. 그러면 내 동생 혜숙이에게 문을 열어줄게.” 내가 그 보다 잘하는 것이 동시를 쓰는 것이었다. 내 동시가 특선을 하면 그는 입선을 했다. 그것이 속상했는지 동시를 달라는 것이다. 나는 문을 열지도 못하고 손발이 꼬여있고 말도 못하고 침만 흘리는 그 동생이 눈앞에 아른 거렸다. 그래서 동시를 주기로 하고 문을 열어 준 것이다. 그는 전교생이 조회를 서는 월요일 아침에 상을 탔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시 상을 받는 것이다. 그가 특선을 하고 나는 입선을 했다. 알아보니 내가 준 동시를 학교에 낸 것이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떻게 내 시를 자기 것처럼 낸 단 말인가? 다른 상도 많이 타면서 그것까지 타야 직성이 풀리나?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나는 그 친구의 꿈을 꾸기도 했고 그리고는 몸이 아팠다. 그가 내 시를 자기 이름으로 낸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일로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그 집에 고무줄놀이 하러 가면 동생 혜숙이가 언니들을 보며 기뻐하라고 번번이 시를 그의 언니에게 바쳤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4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를 만났다. 그는 SKY 대학을 나와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모교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주었다.나는 망설이다가 “혜숙이는 어떻게 되었어?”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우리 언니와 오빠는 다 미국에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혜숙이 데리고 있어. 아주 행복해 한단다. 그리고 혜숙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덕분에 나도 예수를 영접했지. 나 교회 권사야.” 나는 이 친구의 한 마디에 평생의 짐을 다 내려놓는 것 같았다. 그냥 하염없이 웃고만 있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젠 네가 나보다 글도 잘 쓰고 있겠지. 그렇지만 내 시의 수십 편도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아무렴 주고 말고.”

글 / 유정옥

2024년 5월 청평 소중han사람들교회 헌금

● 확장 헌금 ●

김계속(1,000,000) 강정운(40,000) 김연자(1,000,000) 김태희(300,000) 장미숙(500,000) 장춘순(10,000,000) 홍지희(200,000)

● 목적헌금 ●

조은래(6,788,696) 김복실(10,000,000)

● 천사헌금 ●

권아라(1,000,000) 김병식(1,000,000) 김수진(1,000,000) 송형숙(1,000,000)

● 십일조 ●

권아라(200,000) 박봉희(160,000) 박용범(460,000) 변영미(200,000) 변영미(300,000) 성혜숙(200,000) 오태주(230,000)
이경애(100,000) 이성일(300,000) 장은미(62,000) 최영자(130,000) 추연국(170,000) 황우진(140,000)

● 감사헌금 ●

강명석,인정민(50,000) 강인석(50,000) 곽효정(335,000) 고정형(10,000) 구남진(100,000) 구민정(20,000) 권아라(800,000)
권오성(150,000) 김계속(500,000) 김명석(50,000) 김미성(20,000) 김미영(350,000) 김병식(900,000) 김보경(1,000)
김보영(50,000) 김선아(50,000) 김수진(1,150,000) 김순관(50,000) 김순영(100,000) 김연자(270,000) 김연자친구(100,000)
김영관(100,000) 김옥이(100,000) 김우섭(200,000) 김운선(100,000) 김은영(50,000) 김정규(40,000) 김태희(100,000)
김혜림,김윤재(100,000) 김혜은(50,000) 김혜은(20,000) 나오미(300,000) 나한나(100,000) 노성미(60,000) 도영화(2,000,000)
류병환(100,000) 류지숙(250,000) 문병숙(20,000) 문정옥(50,000) 문정임(50,000) 문창호(300,000) 박경철(60,000)
박광숙(100,000) 박상준(100,000) 박선인(540,000) 박성일(200,000) 박정숙(140,000) 박지우(20,000) 박지혜(100,000)
박진미(145,000) 박진미(150,000) 박철민(90,000) 박춘자(300,000) 배순임(600,000) 백현미(20,000) 변영미(50,000)
서강일(50,000) 서금자(310,000) 서종열(500,000) 소한태(10,000) 손후복(250,000) 송기승(30,000) 송병희(20,000)
송재엽(50,000) 송형숙(300,000) 심재술(100,000) 양경임(50,000) 엄영란(60,000) 연영희(10,000) 엄애석(10,000)
예배감사(50,000) 오가연(100,000) 오태주(40,000) 왕규현(600,000) 유명희(520,000) 유솜(200,000) 유재기(50,000)
유정숙(200,000) 유정옥(300,000) 유정희(60,000) 유정희(800,000) 유지현(50,000) 이경남(100,000) 이경애(1,100,000)
이금순(700,000) 이다온(30,000) 이돈철(100,000) 이명숙(30,000) 이미연(50,000) 이상길(20,000) 이성숙(20,000)
이성일(350,000) 이신애(200,000) 이양복(10,000) 이영훈(100,000) 이옥경(30,000) 이재희(30,000) 이정호(30,000)
이중삼,이현순(1,000,000) 이현복(50,000) 이화숙(500,000) 임경남(10,000) 임동규(500,000) 장원진(50,000) 장은미(200,000)
장춘순(300,000) 전대진(50,000) 전은유(50,000) 정동익(30,000) 정재윤(80,000) 정중순(150,000) 정지윤(100,000)
정현영(900,000) 조옥선(20,000) 조정덕(100,000) 조홍제(361,812) 주영자(100,000) 최경순(100,000) 최경아(200,000)
최성숙(50,000) 최성희(30,000) 최영자(70,000) 최은숙(30,000) 최혜령(250,000) 추희경(50,000) 한진선(50,000)
한창식(500,000) 허인숙(20,000) 현성원(30,000) 황보순(100,000) 황순산(200,000) 황우진(210,000) 황정애(100,000)

● 기관후원헌금 ●

가락제일교회(100,000) 계영산업(100,000) 국회기도회(5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임마누엘 펠(200,000) (*토달이엔씨(100,000))

● CMS헌금 ●

강영숙(20,000) 계용돈(10,000) 공은영(30,000) 김귀옥(30,000) 김명화(30,000) 김민정(20,000) 김성자(20,000)
김성자(20,000) 김영신(30,000) 김운집(30,000) 김유진(10,000) 김인경(50,000) 김인경(50,000) 김인열(20,000)
김인열(20,000) 김준희(20,000) 김준희(20,000) 김진영(10,000) 김진영(10,000) 김태희(20,000) 김현정(100,000)
김현정(100,000) 김혜원(30,000) 나지용(15,000) 단선화(50,000) 도주은(100,000) 도주은(100,000) 문옥자(20,000)
문희순(10,000) 문희순(10,000) 민현정(10,000) 박경미(20,000) 박상준(30,000) 박성환(50,000) 박완준(50,000)
박지우(1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열(10,000) 서종열(10,000) 손미경(50,000) 송기승(30,000)
송연숙(50,000) 양윤정(100,000) 오연화(30,000) 오연화(30,000) 유부흥(100,000) 윤성록(50,000) 윤성숙(50,000)
윤인초(10,000) 윤화숙(30,000) 이금순(50,000) 이금화(100,000) 이다연(10,000) 이란주(50,000) 이미진(10,000)
이성림(100,000) 이승은(30,000) 이승은(30,000) 이옥란(10,000) 이원인(150,000) 이윤섭(50,000) 이윤섭(50,000)
이은숙(10,000) 이은숙(10,000) 이정자(50,000) 이정자(50,000) 이주현(10,000) 이준영(10,000) 이찬선(5,000)
이혜숙(10,000) 이혜경(50,000) 임동규(20,000) 임성숙(30,000) 장미경(20,000) 장소현(30,000) 장소현(30,000)
장승아(10,000) 정미선(50,000) 정미선(50,000) 정예은(5,000) 정의영(30,000) 정현명(50,000) 정현명(50,000)
조남남(20,000) 조영실(40,000) 진성권(50,000) 최성(20,000) 최성(20,000) 최신숙(10,000) 최신숙(10,000)
최은숙(1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정임(20,000) 최정임(20,000) 하정민(10,000) 하정민(10,000)
하정숙(20,000) 하혜원(10,000) 하혜원(10,000) 한명희(30,000) 홍금주(10,000) 황지훈(100,000) AhnAnna(100,000)

청평힐링센터 2024년 5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16,788,696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253,879
천사헌금	4,000,000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713,000
십일조	2,652,000	식자재구입비	15,528,977
감사헌금	26,822,812	전기요금	3,778,250
CMS헌금	3,565,000	화재보험료	1,200,000
		병원대여금	5,000,000
		CMS사용료	66,000
		우편발송비 및 광고비	13,960
		KT요금	615,160
		비품구입비(소모품)	1,082,480
		공사비 및 집기구입	3,075,500
		안전점검비	793,330
		평가 및 세금	588,500
		급여인건비	16,167,490
		사회보장보험비	3,912,550
금월 수입 합계	53,828,508	지출 총액	53,789,076
전월 이월금	229,833		
총 수입 합계	54,058,341	금월 잔액	269,265

소중han사람들 - 확장소망헌금명단

1월 : 정진산, 김효선(2,000,000), 김나형(1,000,000), 김혜숙(10,000,000), 유정옥(10,000,000)
2월 : 도주은(1,000,000), 박상준(1,000,000), 박진미(3,500,000), 이성일(10,100,000), 정일만(2,000,000)
3월 : 강금내(1,000,000), 김명옥(1,000,000), 김연자(1,000,000), 김옥겸(2,000,000), 무명(100,000), 정현명(5,000,000), 하지민(1,000,000)
4월 : 박상준(1,000,000), 장미숙(500,000)
5월 : 김계속(1,000,000), 강정운(40,000), 김연자(1,000,000), 김태희(300,000), 장미숙(500,000), 장춘순(10,000,000), 홍지희(200,000)

* 5월말 현재 총, 66,240,000만원

소중han사람들 확장소망헌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han사람들교회

소중han사람들 - 소나무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 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4년 05월 씨앗헌금 후원 : 김행심(10,000), 도영화(2,000,000), 이민석(10,000), 이성숙(20,000), 한종석(400,000)
2024년 05월, 총 6명의 환우에게 2,128,500원을 병원비로 지원하여 환우들이 치료비 부담없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han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쉼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역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5월 가입자 명단 (4명)

448. 권아라 449. 김병식 450. 김수진 451. 송병석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원옥	2. 최미경	3. 최영자	4. 유재선	5. 이명구	6. 김수영	7. 설충근	8. 이희수	9. 조주영	10. 단혜봉	11. 박철중	12. 정동영
13. 조현선	14. 정경석	15. 이문희	16. 박중배	17. 이충성	18. 김갑희	19. 차운옥	20. 성기빈	21. 박은희	22. 박영기	23. 박재범	24. 박순화
25. 임승래	26. 한정택	27. 이성자	28. 강은희	29. 권희규	30. 송광수	31. 김덕상	32. 윤철현	33. 전동화	34. 이혜란	35. 전미리	36. 김영신
37. 임승택	38. 장응훈	39. 이춘자	40. 오병화	41. 최수지	42. 허상익	43. 송명옥	44. 최법락	45. 정수영	46. 정지현	47. 문필자	48. 정한중
49. 정해강	50. 최숙자	51. 윤 안	52. 최법락	53. 최유은	54. 최예은	55. 박정애	56. 정동준	57. 손명옥	58. 권경희	59. 사재신	60. (취)하기
61. 이원영	62. 심 형	63. 이상수	64. 박해숙	65. 이상준	66. 최수경	67. 나선미	68. 김영관	69. 천우규	70. 김대현	71. 김희정	72. 구남진
73. 이종권	74. 정동영	75. 김양숙	76. 이주열	77. 변현명	78. 배경하	79. 최수연	80. 박지현	81. 이경은	82. 이정은	83. 신성란	84. 정훈기
85. 정화창	86. 정예은	87. 박효정	88. 허명중	89. 김미연	90. 신형진	91. 변영은	92. 유성진	93. 정주성	94. 김갑희	95. 박철중	96. 홍명주
97. 김현숙	98. 무 명	99. 유성진	100. 성낙희	101. 권홍봉	102. 황보순	103. 이화영	104. 황정아	105. 황현동	106. 민상태	107. 김현숙	108. 고금진
109. 김유연	110. 계영산업	111. 그레이스한	112. 아이린 김	113. 이향순	114. 이등주	115. 안서영	116. 도문식	117. 김명성	118. 한운희	119. 유성진	120. 권봉도
121. 김현숙	122. 정상희	123. 박유민	124. 이현나	125. 이용옥	126. 이민자	127. 김현숙	128. 이미영	129. 조영석	130. 박차련	131. 김연희	132. 박순화
133. 안정순	134. 김태연	135. 박해숙	136. 양수진	137. 심재록	138. 김현숙	139. 오봉자	140. 이태종	141. 김다비다	142. 전차아	143. 조혜숙	144. 이방훈
145. 박해정	146. 민안나	147. 이금형	148. 윤희진	149. 윤은주	150. 장희희	151. 청평힐링	152. 김희연	153. 안정희	154. 김영숙	155. 문예은	156. 임수미
157. 고영복	158. 김미희	159. 김사라	160. 박준영	161. 박효숙	162. 이석우	163. 이순주	164. 이엘리	165. 이예슬	166. 이재용	167. 이종인	168. 정동영
169. 김필란	170. 유선정	171. 이강순	172. 황희남	173. 김희선	174. 이원경	175. 박경근	176. 김진임	177. 신진경	178. 김 영	179. 이든구	180. 문종만
181. 강인숙	182. 오정민	183. 문지연	184. 문지수	185. 이다정	186. 이든구	187. 송희중	188. 이하운	189. 정윤호	190. 김순애	191. 안준복	192. 이명화
193. 유광현	194. 이든구	195. 이용림	196. 안성훈	197. 박은순	198. 이영숙	199. 윤대요	200. 최금련	201. 김호년	202. 김혜원	203. 장승아	204. 정영신
205. 박영대	206. 양옥경	207. 오재원	208. H	209. 백성운	210. 홍지윤	211. 이희숙	212. 권은미	213. 무명	214. 황산찬	215. 박미행	216. 유민성
217. 우찌마사	218. 이은주	219. 백성운	220. 도영화	221. 박순화	222. 이시은	223. 정호진	224. 김순정	225. 김옥연	226. 윤채원	227. 원적외선원재료	
228. 김예송	229. 김수현	230. 장민숙	231. 김숙희	232. 남원화	233. 남지영	234. 남혜원	235. 김정자	236. 박순순	237. 오준석	238. 노은순	239. 이성혜
240. 최혜원	241. 임계숙	242. 이승재	243. 연구홍	244. 김선경	245. 김선영	246. 손태정	247. 홍수연	248. 이민선	249. 정혜실	250. 한종석	251. 한희숙
252. 김미연	253. 박정희	254. 한영숙	255. 이기열	256. 정은영	257. 이우경	258. 이우경	259. 최영훈	260. 김지옥	261. 김동수	262. 조자영	263. 이선
264. 최영애	265. 장승아	266. 이현미	267. 이주영	268. 이은주	269. 최해진	270. 손현이	271. 송문희	272. 윤용주	273. 변영록	274. 최영자	275. 김성곤
276. 김동완	277. 김주희	278. 이가경	279. 신현규	280. 이현미	281. 민윤홍	282. 이은주	283. 민노엘	284. 이주영	285. 김승정	286. 홍부네	287. 조병호
288. 정영자	289. 이우승	290. 조아나	291. 민현정	292. 박용천	293. 윤주동	294. 장승아	295. 조병호	296. 김명희	297. 홍승경	298. 이성림	299. 김무순
300. 양호경	301. 김주형	302. 권외자	303. 정영애	304. 조아나	305. 김옥경	306. CHOYEARIN	307. 광진관	308. 공은경로사	309. 권유승	310. 방원	311. 남기혁
312. 김소현	313. 윤중문	314. 박재원	315. 이하리	316. 민요한	317. 최홍서	318. 정복숙	319. 김사진	20. 최봉관	321. 이복순	322. 류승희	323. 김영혜
324. 이상아	325. 750204	326. 김인주	327. 김성규	328. 최혜령	329. 이약신	330. 이경옥	331. 민옥선	332. 정향자	333. 이은경	334. 유성진	335. 이상운
336. 최영애	337. 유지혜	338. 채해순	339. 전성훈	340. 정찬영	341. 김은정	342. 윤은혜	343. 맹은자	344. 정현지	345. 이호은	346. 김진숙	347. 정영신
348. 채지영	349. 양호정	350. 유성진	351. 김영남	352. 유철우	353. 유준우	354. 유현주	355. 윤종옥	356. 최유은	357. 전나라	358. 허창만	359. 한송희
360. 도영화	361. 서정민	362. 정영신	363. 오창홍	364. 정찬영	365. 김동준	366. 박지영	367. 장준순	368. 강신공	369. 전영신	370. 송병석	371. 장향자
372. 정진숙	373. 최혜령	374. 서혜원	375. 노아빙주	376. 강인석	377. 최영숙	378. (취)토틸이앤씨	379. 후원금	380. 강민욱	381. 강진욱	382. 강현욱	383. 임지영
384. 빛과소금교회	385. 정영신	387. 김태희	388. 박성준	389. 유동호	390. 박병희	391. 박진미	392. 심규진	393. 김계석(오크성기대)	394. 이윤섭	395. 서태원	
396. 이정현	397. 김수옥	398. 정현영	399. 도영화	400. 김영희	401. 변영록	402. 이화숙	403. 김미자	404. 김순하	405. 이병실	406. CULVUZL	407. 강연구
408. 강정화	409. 이경재	410. 민수희	411. 조규철	412. 윤경일	413. 오형석	414. 이종삼	415. 이지혜	416. 이현순	418. 김영래	419. 조미경	420. 유문재
421. 김윤순	422. 박경철	423. 황우건	424. 서종열	425. 신철수	426. 이성희	427. 박수정	428. 김숙희	429. 정영신	430. 강금내	431. 장은미	432. 박춘자
433. 박경철	434. 임주찬	435. 최승순	436. 김연자	437. 장향자	438. 김계숙	439. 박미순	440. 김연자	441. 구현주	442. 이영섭	443. 이선우	444. 김연자
445. 송미령	446. 김차우	447. 이연주	448. 이금순	449. 서금자	450. 김예은	451. 이금복	452. 이은지	453. 홍선표	448. 권아라	449. 김병식	450. 김수진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청평암환우 힐링센터



▲ 따스한 햇살받으며



▲ 맨발트레킹으로 건강을...



▲ 사랑합니다



▲ 서울역노숙자 전도폭발팀



▲ 성경통독시상식



▲ 소풍왔어요



▲ 유기농 채소 따들어요



▲ 자라섬으로 소풍



▲ 전도폭발10기수료식



▲ 정상에서의 기도



▲ 즐거운 티타임



▲ 천사의 미소



▲ 청평미인들



▲ 폭포수 아래에서..



▲ 행복한 야외예배

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



목요 Precious Worship

목요기도회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박*민 님(뇌종양) - 6월에 5차 항암을 진행합니다. 뇌종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2. 황*진 님(유방암, 간전이) - 유방 림프관에 있는 암이 성형의 불로 태워져 수술 없이 건강한 육신으로 치유되기를,
3. 왕*현 님(폐암 3기) - 6월14일 위내시경, 6월24일 소화기 내과 진료가 있고, 폐암 검사가 6월18일에, 폐CT와 함께 7월11일 폐식도 외과 진료예정이며, 아직 수술 후유증으로 피로와 가슴통증, 기억력저하로 다소 힘들지만 믿음과 기도로 회복되기를,
4. 이*애 님(유방암) - 진통제, 수면제 완전히 끊기를 소망하며, 암 수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모든 부작용(복통, 설사, 혈관, 어깨통증)이 사라지고 뺏속과 간에 있는 암세포의 근원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길,
5. 서*자 님(유방암 4기) - 4월8일 부터 시작한 항암을 끝까지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이겨내게 해 주시고,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잘 치료되도록,
6. 임*규 님(복막종피종) - 몸속의 암세포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 수술 없이 건강한 육신으로 치유되기를,
7. 이*주 님(유방암) -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길 믿으며, 소화기에 있는 동안 완전관계 판정받을 수 있도록,
8. 이*철 님(폐암 4기) - CT 촬영과 MRI 검사 결과, 폐와 간, 림프절에 전이된 암이 다시 뼈로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전이 없게 해 주시고 목과, 머리의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를 바꾸었는데 새로운 진통제가 효과가 있어 통증이 멈출 수 있도록,
9. 강*숙 님(유방암) - 4월26일 CT검사결과 폐에 점 같은 암세포만 몇 개 남았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항암을 통해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더 이상 부작용이 없기를,
10. 김*지 님(담도암 재발 자궁경부질, 직장전이) -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증상들이 가라앉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항암과 방사선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암의 활동이 멈추고 소멸되어 완전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11. 장*미 님(유방암, 다발성 폐전이) - 항암제를 바꾸고 6차까지 진행했으며, 투약 후에 중앙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통증도 줄었는데 내성 없이 암세포가 소멸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6월3일 CT결과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폐렴 진단을 받고 항암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치료가 잘 진행되기를,
12. 김*식 님(췌장암, 전립선암) - 췌장암은 6월3일에 2차 항암을 하였으며, 전립선암은 현재 항암제가 몸에 잘 맞아 3개월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암이 완전 치유되는 기적이 있기를,
13. 김*진 님(유방암, 림프전이) - 6월10일부터 방사선 25회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부위에 물이 차지 않고 잘 아물게 해 주시고, 17일부터 8회차 표적항암을 3주 간격으로 시행하는데, 항호르몬제 복용시 작으로 부작용(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림, 손과 발 얼굴이 붓고 저림, 작열감과 신장, 관절통증)을 최소화하여 강건하게 잘 견디도록 힘주시기를,
14. 유*희 님(대장암, 난소, 복막전이) - 음식을 잘 먹고 소화, 흡수가 원활하여 항암치료를 잘 받게 해 주시고, 5회 이하의 배변 활동으로 배변 후 속이 편하고 잔변감과 통증 없이, 복막에 남아 있는 암이 다 사라지고 사는 날 동안 재발과 전이가 없도록,
15. 최*순 님(갑상선 수질암) - 턱 아래 통증이 감소되며, 힐링센터에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6. 배*경 님(폐암4기) - 2020년 폐암 발병 후, 재발되어 표적항암제로 치료중, 내성으로 2023년 10월 말에 약을 중단하고 치료제를 찾는 중입니다. 악성종양과 유전자 변이까지 깨끗하게 치유받기 원하며, 6월13일 CT검사, 6월24일 진료 예정인데 중앙이 완전 제거되고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17. 이*형 님(폐암 4기) - 지금 받는 임상치료를 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녹아 내리기를,
18. 황*산 님(대장암, 간전이) - 비보험인 표적치료제(스티바카)로 약을 바꾸었는데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먹는 항암제가 제 몸에 잘 맞아서 온전한 치료로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되기를,
19. 곽*정 님(난소암) - PET CT결과 골반 부분에 이상한 흔적이 있는데 암이 아니기를 기도하며, 항생제를 통해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5월22일부터 항암약(제졸라)을 복용 중인데 이 약이 좋은 효과를 내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복용기간동안 응급상황과 재발, 전이, 부종이 없도록,
20. 류*숙 님(폐암4기) - 지금 받고 있는 임상 신약이 주님이 제게 주신 보혈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21. 오*석 님(간암) - 2020년 발병한 암이 21년 3월 임파선으로 전이되어 계속 항암중인데 항암치료 부작용이 복통과 소화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꼭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22. 박*자 님(신우암, 폐전이) - 저의 유전자에 맞는 항암 약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의 심자기의 보혈로, 능력과 기적으로 고침 받을 수 있도록,
23. 박*숙 님(방광암) - 육체가 심히 괴롭고 자처서 너무도 고통속에 있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고 싸매시고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길,
24. 하*애 님(유방암 다발성 뼈전이) - 2005년도 유방암 수술 후, 17년만에 다발성 뼈전이로 표적항암약을 사용하였으나 내성이 생겼고 옆구리와 허리 통증이 심한데, 6월12일 검사결과를 보고 약의 사용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믿고 완전 고침을 받아 주님의 기쁨 되기를

*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중보자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 환우들이 독수리 날개 치트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삶의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울로226)
- 말 씀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서울역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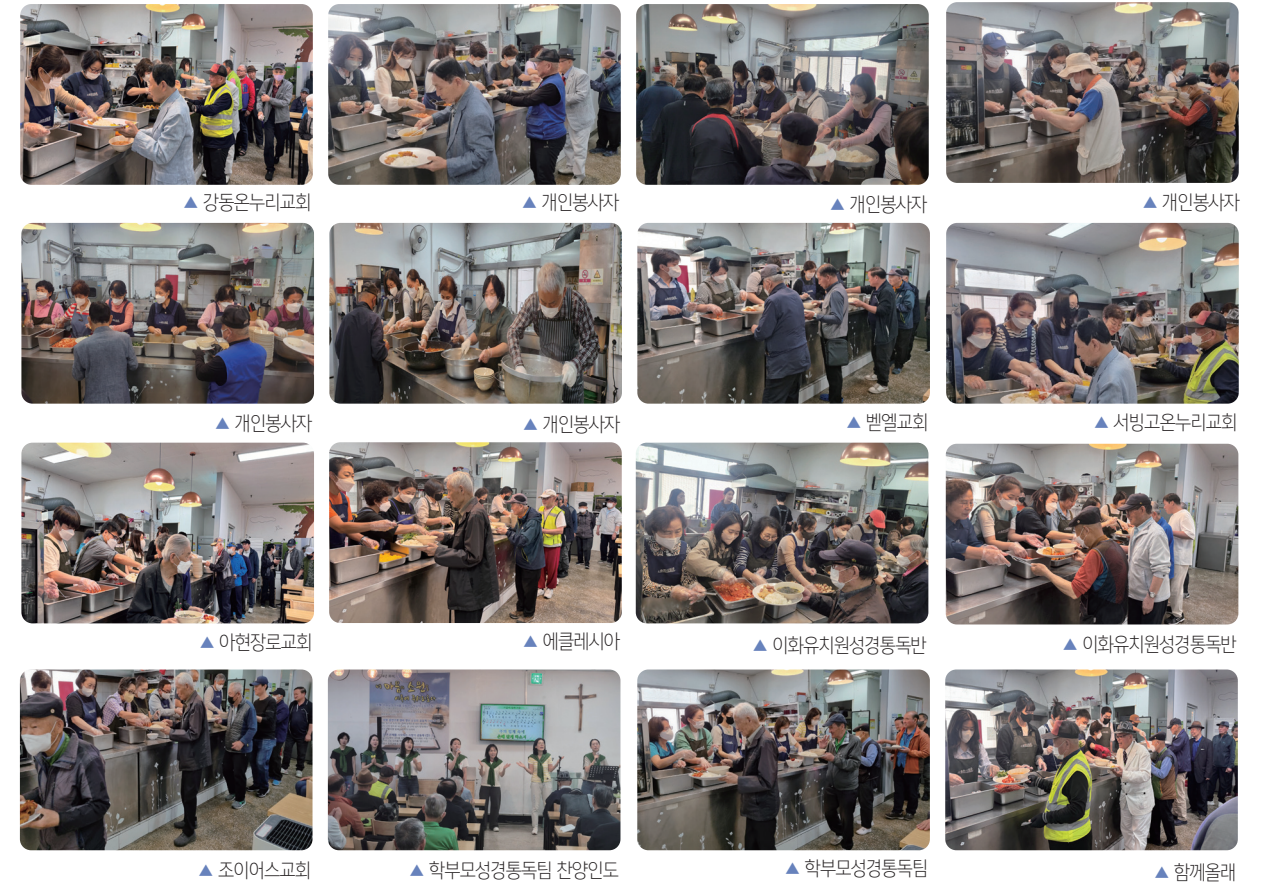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따스한 봄날이 되었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아직도 차가운 겨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의 이웃에게 오늘도 소중한 밥 한그릇, 따스한 차 한잔 정성껏 대접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접해 드리는 밥만으로는 그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노숙인분들께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소망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드리며 전도지를 건네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소중한사람들 교회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1시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0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20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5월에는 4일, 아현장로교회, 7일과 28일 이대 부속 초등학교 성경통독팀 9일 뽀얏교회 11일 에클레시아 14일 조이어스 교회 16일과 23일 이화 유치원 어머니 성경반 18일 함께올래 2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24일 강동 온누리교회 25일 모래내교회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권경희, 고순미, 김성수, 김현숙, 김진숙, 김현옥, 김은경, 박진희, 송경옥, 손홍열, 심난영, 이영훈, 이윤아, 이정자, 이소영, 이우영, 이루리, 유진상, 최선희, 최경희, 최금련, 한현희, 황귀용, 한에스더, 김용수, 강명석, 송기승, 허청만, 이정민, 이지영, 한송희, 임맹자,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진승연, 개인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주희, 김명옥, 송기승, 채정주, 강명석)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중,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유정옥, 주일 이성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오전 11시 예배와 점심 나눔



▲ 간식나눔



▲ 빵나눔



▲ 선한목자병원진료



▲ 헬스바이미용봉사

5월 노숙인들에게 나눔

*5월 18일 (토요일) 25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25일 (토요일) 15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에게 감사드립니다.

* 빵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으로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수량	재고
5/3	푸드뱅크	빵/도넛/츄류/부식류	5/1/1박스	5/4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2/1/1박스	3/0/0박스
				5/5			3/0/0박스	0/0/0박스
5/4	기정선	토마토5kg/오이10kg	1/1박스	5/5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1/1박스	0/0박스
5/7	푸드뱅크	빵	4박스	5/8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2박스	2박스
				5/9			2박스	0박스
5/10	푸드뱅크	빵/부식류/떡	4/1/1박스	5/11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2/1/1박스	2/0/0박스
				5/12			2/0/0박스	0/0/0박스
5/11	에클레시아	바나나	2박스	5/12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2박스	0박스
5/13	푸드뱅크	빵	5박스	5/14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3박스	2박스
				5/15			2박스	0박스
5/14	무명	쌀	1포	5/17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1포	0포
5/17	푸드뱅크	빵/부식류/떡/민두	4/1/1/1박스	5/18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2/1/1/1박스	0/0/0/0박스
				5/19			2/0/0/0박스	0/0/0/0박스
5/20	푸드뱅크	빵	4박스	5/21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2박스	2박스
				5/22			2박스	0박스
5/23	이소영	쿠키세트	1박스	5/24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1박스	0박스
5/24	푸드뱅크	빵/부식류/떡	3/1/1박스	5/25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3/1/1박스	0/0/0박스
5/27	학부모성경통독팀	간식세트	1박스	5/28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1박스	0박스
5/27	푸드뱅크	빵/도넛/츄류/부식류	4/1/1박스	5/28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2/1/1박스	2/0/0박스
				5/29			2/0/0박스	0/0/0박스
5/31	노아	돼지고기10kg	5박스	6/1-6/5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각 1박스	0박스
5/31	푸드뱅크	빵/떡	4/1/1박스	6/1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2/1/1박스	2/0/0박스
				6/2			2/0/0박스	0/0/0박스



▲ 간식-학부모성경통독팀



▲ 배나-에클레시아



▲ 빵/도넛/츄류-한정임



▲ 쌀-무명



▲ 쿠키세트-이소영



▲ 토마토,오이-기정선

생애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7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7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주신다.

매일 셋째 토요일 12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011회가 되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중보기도 제목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남성 쉼터 생활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위,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바,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4. 아이티 사역

- 1) 교육 -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1후원 3) 싱글맘 사역 4) 형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5. 치유

- 신형진, 최유은, 김정신, 김진수, 이엘리, 박철민, 황우진, 김연자, 김계숙, 황순산, 장은미, 김병식, 권오정, 양규현, 이경애, 서금자, 임동규, 김수진, 권아라, 류지숙, 오홍석, 유정희, 이윤주, 박춘자, 박정숙, 최승순, 하미애, 배윤경, 이해형, 이돈철, 김태린, 이부자,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6.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총,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으셨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신형진님이 9차까지 맞은 스피라자 주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차 이후 주사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피라자 주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신형진이 다시 스피라자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 앤드류 서 구명을 위해

19살에 폰티악 감옥소에 들어가 50세가 되어 출감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앤드류 서는 80년을 옥중생활을 해야 하는데 30년을 모범수로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모범수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앤드류 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감한 것입니다. 앤드류 서의 집과 생필품과 직장과 옆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여자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아이티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무법천지로 변했다. 무장 갱단의 폭동으로 경찰서와 은행이 불타고 도시에 총탄이 난무하면서 지금까지 수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곳곳에 시신이 굴러다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 나라엔 현재 대통령이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마저 전격 사퇴했다. 국회도 없다.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17일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들 갱단은 교도소 2곳을 습격해 수천 명의 범죄자를 탈출시켰다. 국제 공항과 항구, 최소 12곳의 경찰서를 습격했다. 다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힘겹게 병원으로 걸어가는가 하면 불에 탄 차들과 타이어, 부서진 건물 잔해가 거리에 널려 있다. 하지만 폭동을 막을 경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국민을 도와야 할 공무원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1월 선출직 공무원 임기가 만료돼 국회의원도 없는 실정이다. 유엔은 부상당한 환자를 치료할 인력과 장비, 병상,약품, 혈액 부족으로 보건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혼란을 틈타 무장 갱단이 세력을 키웠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아리엘 앙리 총리 퇴진을 요구해 왔다. 앙리 총리는 지난달 7일까지 사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 이를 번복하고 케냐로 출국했다. 케냐에 병력 파견을 요청하러 간 것이다. 아이티 사회는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하실지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다. 재배마을에 이어 귀통마을에 이어진 초등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아이티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후원을 바랍니다. 다른 마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미얀마

소중한사람들은 2008년부터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재 미얀마고아 후원과 초등학교 운영, 중 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칼레이 기독교 초등학교는 2015년 4월 미얀마 교육부로 공식 인가를 받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고, 미얀마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을 통하여 양육 받고 교육받은 고아들이 이젠 새로 들어오는 고아들을 돌보는 교사들로 일하고 있단니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심년이 넘는 시간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랑의 사역이 계속 되어져서 수많은 미얀마 고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싱싱한 초록물이 곳곳에서 탁! 터질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6월!

어릴 적 엄마가 가꾸던 꽃밭이 생각납니다.

앞쪽엔 채송화, 봉숭아, 맨드라미, 제일 뒤쪽은 글라디올러스...

제가 잘못하면 꽃밭에 숨으라고 하시던 엄마의 목소리 지금도 선합니다.

5월에 미국 뉴저지에서 목적 헌금을 보내주신 조은래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을 보내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십일조를 보내주신

김용수 송연숙, 김영진 손미나, 이성웅 이한나, 유지혜 류지숙, 유진상 황귀용, 정종대 진승연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덕희, 고무원, 구명신, 김가람, 김영림, 김영선, 김태희, 김현숙, 나은선, 노미경, 노아, 도문식, 도영화, 류지숙, 문영숙, 박문희, 박수현, 박철규, 박혜수, 송희종, 신현경, 신형진, 신혜영, 엄춘란, 연구흠, 유광현, 유영재, 유정옥, 윤원석, 이고은, 이은주, 이재욱, 이주희, 이태희, 이황희, 임귀례, 임나리, 임맹자, 임윤엽, 장선화, 장지호, 정유나, 최진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관, 단체 헌금을 보내주신 (사)온누리약국 복지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신 (기갑)안양감리교회, (예장) 경주제일교회, 영락교회, 베이직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김명수, 신현우, 주영훈, 감사파이팅, 송기승, 유정숙, 이정대, 이성웅 이한나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조경숙, 신혜영, 한종석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헌금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섬김 헌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쉼터 생활인들은 취직을 하여 직장을 얻고 저축을 하며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력무력 자라고 있습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형진님이 스피라자 주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자 신형진, 최유운, 김정신, 김진수, 이엘리, 박철민 황우진, 김연자, 김계숙, 황순산, 장은미, 김병식, 곽효정, 왕규현, 이경애, 서금자, 임동규, 김수진, 권아라, 류지숙, 오홍석, 유정희, 이윤주, 박춘자, 박정숙, 최순순, 하미애, 배윤경, 이혜형, 이돈칠, 김태린, 이부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충,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승,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 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유정옥 드림

2024년 05월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2024년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십일조 헌금●

강덕희(70,000)	고무원(200,000)	구명신(200,000)	김가람(450,000)	김영림(300,000)	김영선(50,000)
김영진,손미나(1,700,000)	김용수,송연숙(350,000)	김태희(160,000)	김현숙(1,000,000)	나은선(300,000)	노미경(500,000)
노아(1,000,000)	도문식(500,000)	도영화(2,000,000)	류지숙(500,000)	문영숙(200,000)	박문희(193,000)
박수현(200,000)	박철규(250,000)	박혜수(500,000)	송희중(500,000)	신현경(500,000)	신현진(450,000)
신혜영(250,000)	엄춘란(500,000)	연규흠(200,000)	유광현(300,000)	유영재(350,000)	유정숙(200,000)
유지혜,류지숙(1,000,000)	유진상,황귀용(2,000,000)	윤원석(200,000)	이고은(590,000)	이성웅,이한나(350,000)	이은주(950,000)
이재욱(600,000)	이주희(270,000)	이태희(32,000)	이황희(32,000)	임귀례(300,000)	임나리(600,000)
임명자(300,000)	임윤엽(220,000)	장선화(200,000)	장지호(50,000)	정유나(500,000)	정종대,진승현(2,100,000)
최진욱(200,000)					

●목적 헌금●

기부금(4,000,000)

●개인 감사헌금●

감사파이팅(440,000)	강덕희(20,000)	강성희(30,000)	강윤옥(10,000)	권정연(100,000)	급식후원(10,000)
김갑희(130,000)	김진희(5,000)	김경숙(20,000)	김경식(10,000)	김남이(50,000)	김도영(30,000)
김동민(10,000)	김명욱(80,000)	김미선(50,000)	김미정(20,000)	김민자(20,000)	김선아(100,000)
김성희(30,000)	김승희(50,000)	김영림(20,000)	김영미(50,000)	김영선(10,000)	김유경(50,000)
김정훈(10,000)	김종명(100,000)	김진환(100,000)	김태세(40,000)	김태희(80,000)	김하영(100,000)
김행심(10,000)	김현서(20,000)	김홍석,한선희(100,000)	김호선(100,000)	김희정(50,000)	나종숙(60,000)
노숙자돕기(50,000)	노원균(30,000)	류한금(10,000)	박대수(10,000)	박동준(10,000)	박문희(40,000)
박성은(100,000)	박세준(50,000)	박인혜(70,000)	박재빈(10,000)	박정애(30,000)	박정환(20,000)
배윤희(10,000)	배희영(10,000)	백주현(40,000)	변경자(20,000)	석동신(40,000)	성명숙,이경민(50,000)
소진경(30,000)	송계순(30,000)	송기승(170,000)	송연숙(100,000)	심요엘(10,000)	안형욱(100,000)
양복길(13,000)	오경남(20,000)	오선향(100,000)	오선희(50,000)	오지석(100,000)	유순애(30,000)
유재학(120,000)	유정숙(150,000)	유정욱(10,000)	윤재운(40,000)	윤화(30,000)	이기형(40,000)
이상훈(10,000)	이선아(200,000)	이성웅,이한나(500,000)	이성혜(5,000)	이연옥(10,000)	이영숙(20,000)
이옥경(200,000)	이용섭(50,000)	이용남(30,000)	이원욱(100,000)	이윤아(30,000)	이윤정(100,000)
이재성(50,000)	이재욱(100,000)	이정대(180,000)	이정선(100,000)	이주희(40,000)	이지은(10,000)
이춘(100,000)	이태희(20,000)	이한나(50,000)	이현경(30,000)	이황희(20,000)	임명자(80,000)
임미선,문득일(50,000)	장광욱,장자인(50,000)	장란숙(100,000)	장종숙(40,000)	전혜영(10,000)	정영애(20,000)
정유진(100,000)	정윤(30,000)	정일권(10,000)	정주연(50,000)	정태현(10,000)	정혜영(50,000)
조민화(10,000)	조성애(50,000)	조영미(30,000)	조을남(10,000)	조정희(10,000)	조정희(10,000)
조진영(50,000)	주혜선(10,000)	최성은(10,000)	최진복(20,000)	최진자(100,000)	한경숙(10,000)
한보성(100,000)	한송희(100,000)	한에스더(100,000)	홍복실(100,000)	황보혜(50,000)	

●교회 감사헌금●

(기감)벨엘교회(100,000) (기감)선재중앙교회(100,000) (기감)선한목자교회(100,000) (기감)안양감리교회(200,000)
 (기성)아현성결교회(100,000) (예장)경주제일교회(200,000) (예장)문호교회(100,000) (예장)영락교회(300,000) (예장)하나로교회(100,000)
 베이직교회(1,000,000) 비전성서침례교회(30,000) 조이어스커뮤니티(20,000) 한국기독교장로회(50,000)

●기관 감사헌금●

(사)온누리약국복지회(300,000) 마라나타(30,000) 사랑의센터(50,000) 엔씨마수학학원(100,000) (주)컨피테크(100,000)
 (주)트보디자인(200,000) SKY(50,000)

●미얀마교아 선교헌금●

글로벌비즈니스(40,000)	곽상미(40,000)	김명자(10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백천성(40,000)	안성훈,송명욱(40,000)	윤혜경(40,000)	이성자(40,000)
이성자(40,000)	이현미(40,000)	이혜란(40,000)	정영애(40,000)	조갑동(40,000)	주영훈(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중국교아 선교헌금●

박선주(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조춘식(40,000)
-------------	-------------	-------------	-------------

●멕시코교아 선교헌금●

김동만(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	-------------	-------------

●북한교아 선교헌금●

글로벌비즈니스(40,000)	강일화(40,000)	강현미(40,000)	권경희(20,000)	김명호(20,000)	김미원(40,000)
김소명(5,000)	박승호(50,000)	석영란(2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윤혜원(20,000)
이복자(100,000)	이순주(20,000)	이은경(30,000)	이혜란(40,000)	정미주(40,000)	한상준(10,000)
함수아(40,000)	황주영(15,000)				

●북한선교 헌금●

(주)엔페이브(50,000)	김광훈,김미영(50,000)	김지혜(30,000)	남기국(10,000)	박혜영(30,000)	신경자(100,000)
이은혜(50,000)	이혜란(50,000)	장승아(50,000)	장은별(50,000)	전해봉(20,000)	정유진(30,000)
지선옥(20,000)					

●베트남선교 헌금●

강연구(40,000)	박진희(40,000)
-------------	-------------

●아이티교아 선교헌금●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갓피플웨딩(40,000)	갓피플웨딩(40,000)	강인순(40,000)
김경희(40,000)	김대준,손향(40,000)	김상진,손향(40,000)	고순미(40,000)
새산성교회(40,000)	손향(40,000)	송현주(40,000)	박선인(40,000)
이재혁(40,000)	이찬의(40,000)	이혜란(40,000)	박선주(40,000)
조정숙(40,000)	채신혜(30,000)	최춘호(80,000)	노윤정(40,000)
홍정희(40,000)	홍정희(40,000)		박선인(40,000)
			안서영,송명욱(40,000)
			윤혜경(40,000)
			장요셉,손향(40,000)
			장정문(40,000)
			조경희(40,000)
			한국외국어대학교서양종교사상(50,000)

●아이티 선교헌금●

김수천,이준자(100,000)	무명(300,000)	민하은(1,000)	박영미(35,000)	박종래,최임선(20,000)	박혜진(10,000)
서보람(100,000)	성찬영(50,000)	신현정(30,000)	신혜영(250,000)		
이정희(30,000)	조경숙(100,000)	조경숙(100,000)	최주리(50,000)	최춘호(30,000)	
하미경(20,000)	한종석(200,000)				



(주)엔페이브(50,000)	(주)창세에스엔티(50,000)	갯피플웨딩(50,000)	강금내(30,000)	강도숙(10,000)	강면구(20,000)	강명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현미(20,000)	강화란(10,000)	계영산업(50,000)	계용돈(10,000)	고건화(10,000)	고남균(10,000)	고명희(1,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은숙(5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미희(30,000)
권유미(10,000)	권정아(10,000)	권혁천(10,000)	클로벨비즈니스(50,000)	길벗여행사(100,000)	길상임(10,000)	김경리(1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광찬(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형(100,000)	김대원(10,000)
김동균(50,000)	김동만(50,000)	김동영(10,000)	김라함(30,000)	김명수(300,000)	김명순(10,000)	김명옥(10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화(10,000)	김민경(30,000)	김번옥(10,000)	김베드로(10,000)	김보경(10,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명(10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성하(5,000)	김소라(10,000)	김소망(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1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수현(30,000)	김숙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승훈(30,000)	김연옥(10,000)	김영상(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인(1,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오례(10,000)	김옥경(20,000)	김용경(1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정(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의환(5,000)
김인자(50,000)	김인주(50,000)	김일형(20,000)	김재동(30,000)	김재정(80,000)	김정숙(10,000)	김정화(2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애(20,000)	김지아(10,000)	김지은(20,000)	김지현(30,000)	김진아(5,000)
김태조(10,000)	김태훈(5,000)	김향숙(10,000)	김향순(5,000)	김현미(10,000)	김현미(20,000)	김현자(30,000)
김혜린(5,000)	김혜숙(5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화련(50,000)	김효정(20,000)	김희숙(30,000)
김희정(1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나지용(5,000)	남혜경(20,000)	노란이(30,000)	노은실(10,000)
노현자(20,000)	도문식(30,000)	라미영(5,000)	로고스스터디(20,000)	류명순(5,000)	류승한(10,000)	명은자(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상철(10,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경화(10,000)	박관택(30,000)	박다운(5,000)	박명희(10,000)	박미경(1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배근(10,000)	박봉선(1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성영(3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양미(4,000)
박영수(10,000)	박영자(20,000)	박자연(5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상(10,000)
박진철(10,000)	박찬국(3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혜정(10,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규진(20,000)	백창미(5,000)	백현미(10,000)
변상민(10,000)	변요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사재신(20,000)	서상숙(20,000)	서정국(50,000)
서혜원(20,000)	석영란(10,000)	석진혁(30,000)	성기빈(40,000)	성남시청신우회(30,000)	성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석원(20,000)	손성미(2,000)	손요섭(10,000)	손진아(10,000)	손현경(1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상신(10,000)	송연숙(5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송하정(10,000)	신승우(50,000)
신은미(30,000)	신은미(30,000)	신정용(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신희진(20,000)	씨엠피코리아(100,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효철(1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미란(5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영훈(5,000)	양의문교회(30,000)	양현아(20,000)	여예인(20,000)	여인귀(30,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우상하(20,000)	우창훈(4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민아(10,000)	유복희(10,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소연(3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레(10,000)	유정모(20,000)	유준서(5,000)	유혜원(5,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윤예준(10,000)	윤용석(10,000)
윤정민(5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홍찬(1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진(10,000)	이경화(30,000)	이공이(100,000)	이귀남(30,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길성(30,000)	이동욱(1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미옥(3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복자(100,000)	이산록(20,000)	이삼종(50,000)
이성순(10,000)	이성자(20,000)	이소영(3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승연(3,000)	이애연(10,000)	이애희(10,000)	이영미(30,000)	이영석(100,000)	이예원(10,000)	이옥순(20,000)
이유진(3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은혜(50,000)	이의신(10,000)	이의희(10,000)	이인용(20,000)
이재은(20,000)	이재형(10,000)	이재희(30,000)	이정란(10,000)	이정민(1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종수(10,000)	이종수(40,000)	이주아(20,000)	이준옥(1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100,000)	이찬의(50,000)
이향순(50,000)	이현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홍종(30,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경희(2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규(10,000)	임수섭(3,000)
임신화(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춘옥(20,000)	임혜순(30,000)	장문심(10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윤정(1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전경진(100,000)	전애영(20,000)	전영선(10,000)	전재국(10,000)	전지숙(100,000)	전하영(260,000)	전해봉(10,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영호(30,000)	정우찬(30,000)	정유나(50,000)	정유정(20,000)	정윤경(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이랑(10,000)	정인철(50,000)	정재겸(5,000)	정재이(5,000)	정진숙(10,000)
정해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새름(10,000)	조성림(10,000)	조성완(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0)
조주상(20,000)	조현미(1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주찬양교회(50,000)	지선옥(12,000)	지영자(50,000)
진순애(1,000)	차희승(40,000)	채송화(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강의(10,000)	최경선(10,000)	최귀영(10,000)	최금련(30,000)	최민형(10,000)
최상해(10,000)	최영숙(30,000)	최영실(5,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재희(100,000)	최정순(5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숙(20,000)	최현종(10,000)	최혜정(10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미운(30,000)	한지영(5,000)	한진현(10,000)	함대훈(10,000)	함지훈(10,000)
허상익(30,000)	허인애(30,000)	홍성경(30,000)	홍순경(20,000)	홍영희(5,000)	홍윤희(20,000)	홍재필(20,000)
홍주연(2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중문(10,000)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소중한사람들에 헌금을 보내시려면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사람들교회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RR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0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헌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06 소중한사람들 확장 소망 헌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 02-365-9104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목적지정 안함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사업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교회 <input type="checkbox"/> 암 환우 힐링센터 해외고아 1:1 결연(4만원) <input type="checkbox"/> 미얀마 <input type="checkbox"/> 아이티 <input type="checkbox"/> 멕시코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후원(CMS) <input type="checkbox"/> 직접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16일 <input type="checkbox"/> 26일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한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미 국 [Precious People] 41 E. Prospect Ave. Mt. Vernon, NY 10550 U.S.A.

아이티 DELMA 75, PORT-AU-PRINCE, HAITI TEL 509-3655-7153

멕시코 Lote 4 Man Zana 7 s/n nacionalistade Sanchez Tabada la Meza Ensenada, B.C cp22790 TEL 521-646-947-9250

미얀마 No724/D. No(41) B.E.P.S Lane, Lower Mingalardom Road. Sintngu @TR. Insein Tounship yangon. Myanmar.
TEL 951-645858, 959-73086721

중
국
복
한